

물류표준화 및 회원사 확대 주력

회원사 서비스 강화 다짐



이 경 호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회장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 협회는 지난 2월 19일 제13기 정기총회를 개최, 영림목재(주) 이경호 대표이사를 제15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올해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긴축운영, 선택과 집중으로 위기 극복'과 '유닛로드시스템 보급 확산을 통한 산업 물류 혁신'을 목표로 △ 회원 서비스 강화 △ 국가 물류 표준화 수준의 질적 향상 도모 △ ULS 전문 인력 양성 (APSF 및 Asia Unit Load School의 육성, ULS 전문가 양성 기관화) △ APSF의 본격적인 활동체계 확립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 이경호 신임회장은 지난 달 1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취임 소감 및 협회 운영 방침과 계획을 발표했다.

“파렛트, 컨테이너분야는 물류의 기본으로 효율화를 극대화시키는 미래 지향적 산업입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에 큰 중책을 맡게 되었지만 회원사들의 권익신장에 주력하고 물류 표준화에 앞장서 물류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이경호 회장은 협회 회원사 확대와 잠재시장에 파렛트, 컨테이너의 수요를 늘려 대중화시킬 것을 다짐하며 취임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임기 중 회원사 확대에 주력할 계획으로 지방에 있는 물류기기 업체들의 협회 가입을 늘리고 회원사들의 이익증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그동안 협회는 국내 물류표준화 활성화와 아시아역내 물류 효율화 활동 등 공익적 활동에 주력해 왔다. 그 예로 협회의 주최로 수행하고 있는 아시아 유닛로드 스쿨을 들 수 있다.

지난 2007년 협회는 태국, 베트남 등에서 이 교육과정을 통해 유닛로드시스템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아시아 파렛트컨테이너 표준화를 통한 미래물류시스템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이 회장은 “협회가 국내 물류표준화 기반 다지기 및 아시아 물류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익적 활동에 더 치우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물류표준화 활동뿐만 아니라 회원사들의 이익창출을 위해 회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사들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경제 불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나 시장의 흐름 등 각종 정보전달 기능과 업계 의견수렴에 주

력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 중 표준파렛트(T-11형) 보급율이 모범케이스로 꼽힐 정도로 활성화 돼 있다. 이 회장은 “표준파렛트가 성공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것에 비해 컨테이너표준화는 시작단계”이라며 “컨테이너전문위원회 활동 지원을 통해 한국형 표준컨테이너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이 회장은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물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물류표준화를 밑바탕으로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플라인 체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유닛로드 시스템과 무선인식 태그(RFID) 시스템을 적용한 최적화된 물류기기 개발, 파렛트의 RFID 장착 등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 물류혁신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파렛트, 컨테이너 표준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물류부문과 연계성을 갖추고 있는 포장표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포장산업에서 보다 많은 포장물류 인력이 양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물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여러 단체들과 세미나 및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긴축경영과 정예화, 추진사업의 엄선 및 집중, 회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협회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는 이경호 회장은 협회 발전뿐만 아니라 물류선진화에도 힘써 나갈 것이다. [K]

이한얼 기자



▲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간담회